

보도자료

2024년 11월 1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학농민혁명11념재단

총 2쪽(붙임 1쪽 포함)

담당부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연구조사부장 이병규(063-530-9430) / 담당자 김동군(063-530-943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새롭게 밝혀진 동학농민군의 지역별 활동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은 고창군,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함께 「새롭게 밝혀진 동학농민군의 지역별 활동」이라는 주제로 11월 15일(금) 오전 11시 고 창 청소년수련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고창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포함하여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강원, 경상, 충청지역 등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동학농 민군의 활동을 새롭게 고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신영우 소장의 '고창·무장·흥덕과 인근지 역 동학농민군 활동'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신진희 교수(안동대)의 '경상 도 칠곡·군위·의흥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유바다 교수(고려대)의 '충청도 서천과 인 근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김양식 교수(청주대)의 '충북 북부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박준성 연구원(역사학연구소)의 '강원도 정선·영월·평창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였던 고창을 포함 하여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경상도 칠곡·군위·의흥. 충청도 서천. 충북 북부. 강 원도 정선 · 영월 · 평창 등 전국 각지의 동학농민군 활동을 새롭게 살펴봄으로써 동학농민 혁명이 전국적으로 봉기한 전민족적 사건이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 했다.

붙임: 학술대회 안내장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063-530-9430), 연구조사부 김동군(☎ 063-530-94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